

16/08/21(주) 주일예배 / 제목 :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계 2:12~17) p. 400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우리는 주님께서 1세기에 존재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보내신 편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 /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버가모’ 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버가모 교회의 실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알아야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Pergamum)는 "요새"라는 뜻으로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00km 지점과 에게해에서 약 24km 떨어진 내륙의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고대도시입니다. 지금은 베르가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상업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133년까지 고대 아탈리드 왕국(Attalid Kingdom)의 수도였으며, 로마 제국에 편입된 후에도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에베소와 서머나와 더불어 소아시아의 3대 도시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리스·로마의 신들 중 제와 에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두 신전은 보는 사람마다 위압감을 느낄 만큼 규모도 컸고 버가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술과 연극의 신인 다이오니소스 신전과 의학과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뱀의 형상으로 의학을 상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의무부대, 대한의사협회, 세계보건기구(WHO)의 로고입니다. 세 기구의 로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뱀이 있습니다. 이들 로고에 등장하는 뱀이 위쪽으로 올라가며 돌돌 감싸고 있는 지팡이를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Rod of Asclepius)’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 전체에 우상이 넘쳐났고 악한 영의 영향력이 컸던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에는 20만 권에 달하는 책을 소장한 대형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모든 책을 일일이 손으로 써야 했던 시대에 버가모의 도서관이 20만 권의 책을 소장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옛날 애굽에서는 주로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었지만, 특별히 버가모에서는 양피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양피지(parchment)라는 말은 버가모(Pergamum)란 명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버가모에는 4개의 신을 위한 신전이 있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까지 있었으니 우상숭배가 만연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본문의 말씀이 상황이 이해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왜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습니까? 이유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버가모에서 버가모 교회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감안할 때 버가모 교회가 필연적으로 영적전쟁을 도모해야 하는 사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로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였습니다. 의사는 날카로운 칼로 환자의 병든 부위를 잘라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시기 위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2.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13절)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처한 곳의 형편이 영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서머나에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의 형편은 서머나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좌” 곧 사탄의 보좌가 있었기에 사탄이 사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좌’라는 말은 버가모 도시 정상에 있는 제우스 제단과 그리고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 신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신전과 병원이 세워져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 이 도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료의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믿도록 세상이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바’입니다. 성경은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디바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석공이었지만 황제신상 만들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놋으로 만들어진 황소에 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잠가 놋 황소와 함께 불에 구워져 죽었다고 합니다. 안디바는 세상 사람들이 불 때에는 권력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죽어간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14~15절)

버가모 교회는 밖으로부터 몰려오는 핍박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은 잘 이겨냈지만 속으로 파고드는 유혹은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버가모 교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부분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

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말은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가르쳐준 꾀를 가리킵니다. 발람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당시의 모압왕 발락에게 돈으로 매수를 당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이하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요단강 맞은편 모압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를 크게 두려워한 모압왕 발락이 당대의 술사 발람을 복술의 예물로 유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강권적으로 막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민 22-24장). 그런데도 발람은 복술의 예물이 끝내 탐이 나서 교활한 꾀를 내어 모압왕 발락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인계(美人計)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모압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이어 모압신 바알브올에게 숭배하도록 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진노하시고 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민 25:9; 고전 10:8). 그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 모압을 쳐서 파하고 그때 발람도 칼로 쳐 죽였습니다(민 31:8, 16). 그후로 바알브올 사건 혹은 발람의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유대역사와 신약성경에 우상숭배와 음행사건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벧후 2:15; 유 1:11).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 신전에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도 음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교회에서 잠시 언급된 적이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정체는 잘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니골라가 나중에 배교를 하여 이단인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발람의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니골라 당은 교회 안에 사악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적 경향을 띤 이단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행음은 윤리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혼합주의나 우상숭배를 할 때 일컫는 표현입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고대에는 축제도 많았는데 이 축제에서 나온 음식은 대부분 이교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런 축제에 참여하거나 또 시장이나 친구 집에서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느냐는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자유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음식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고전8:4).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딤후4:4).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지식이 있지만 만약 그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고전 8:13). 그러므로 이 문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우상의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니콜라당은 율법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구원은 영으로 받는 것이므로, 육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행을 합리화시키는 교훈을 퍼뜨렸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니콜라당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정당화 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無)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좇아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동시에 무(無)율법주의도 아닙니다.

4.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16절)

앞 절에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칠 처방을 내리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버가모 교회는 전체적으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는 이들이 자기들의 그릇된 사상을 펼치는 것도 단호하게 금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이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사정없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칼로 발람의 악한 길을 저지하고자 하셨지만, 발람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까(민22:31). 그래서 결국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았던 발람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민31:8).

5. 회복하는데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첫째 약속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6:51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원토록 누립니다.

둘째 약속은 “또 흰 돌을 줄 터인데”입니다. 흰 돌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급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경기에 우승한 자들에게 “흰 돌”이 주어졌습니다. 그 돌에는 우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흰 돌을 받은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회석에 초대되었을 때 초대권으로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 흰 돌을 가진 사람만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시에 무죄의 표시로 쓰이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은 검은 돌을 던졌고,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셋째 약속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받는 사람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참된 기쁨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 외에는 그 진실된 맛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1세기에 존재했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가 됩시다.

요약정리 /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2절)
2.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13절)
3.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14~15절)
4.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16절)

5. 회복하는데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